

퇴소를 앞 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재분리 준비경험에 관한 질적 사례연구

윤 명 숙⁺

(전북대학교)

박 신 애⁺⁺

(전북대학교)

[요 약]

본 연구는 퇴소를 앞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시설입소로 인해 경험한 부모 분리와 시설입소 생활이후 다시 시설 퇴소를 앞둔 상황에서 재분리 준비 경험은 어떠한지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를 위해 퇴소를 1-2년 정도 앞두고 있는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인터뷰 하였고, 질적 사례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이 부모들에 의해 부모 분리를 경험하며 시설에 입소하게 된다. 이후 부모와 헤어져 시설에서 길고 긴 사춘기를 겪고 성장하면서, 시설 퇴소를 앞두고 되었다. 이러한 시설로부터의 재분리 준비는 부모 분리와는 전혀 다른 두근거리는 걱정과 설렘을 주었고, 미래에 대한 바람과 희망을 품게 하는 소중한 경험임을 드러내 주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퇴소를 앞 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주제어 :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부모와의 분리, 재분리, 질적 사례연구

+ 주저자

++ 교신저자

1. 서론

모든 사람들은 살아가는 동안 크고 작은 다양한 형태의 외상(trauma)을 경험하게 되는데, 외상의 종류, 지속성, 강도, 경험 시기에 따라 개인이 느끼는 외상의 정도는 매우 주관적일 수밖에 없다(윤명숙, 2013). 외상의 이러한 특성으로 인하여, 외상 사건(traumatic event)은 지각한 사람에 따라 삶을 뒤흔드는 아주 높은 스트레스 사건(Tedeschi and Calhoun, 2004)으로 발전하기도 한다. 외상을 경험한 사람들은 흔히 심신의 고통을 호소하며 그 정도가 심할 때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로 진단되기도 하지만, 이들 중 어떤 사람들은 외상을 겪기 이전보다 더 성장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김지애·이동귀, 2012).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의 경우, 이미 시설입소 과정에서 부모 및 가족과의 분리라는 외상 사건을 경험했을 뿐 아니라 시설 입소 이전의 다양한 경로에서 부정적인 경험을 하였을 가능성이 높음을 예측할 수 있다(양승연 외, 2012).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은 심리·정서 발달에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점차 성인기로 성장해 나가는 데 있어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설아동들은 전반적으로 위축, 불안 및 우울과 같은 내재화 문제보다 비행과 공격성과 같은 외현화 문제를 더 많이 보이며(김현자 외, 2008), 행동문제의 발생과 함께 이러한 행동문제 양상이 이들의 사회적 적응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이순형 외, 2001).

한편,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만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며, 시설생활이 주는 긍정적인 기능 또한 고려해 볼 수 있다. 집단 거주하는 시설에서의 공동체 생활은 협력과 우정을 발달시키고(변은진, 2002), 공동생활을 통해 타인의 권리나 능력에 대해 바르게 인식할 수 있는 경험으로 인해 동료 청소년 간 경쟁력을 강화시켜 자기개발 촉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신은주, 1995). 이렇듯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들은 각 개인의 적응유연성에 따라 다른 적응을 보이며(김보람 외, 2007), 강한 내적통제성향을 보이는 아동들은 긍정적으로 적응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유안진 외, 2001). 더 나아가 양육시설 아동은 사회적 지지를 높게 지각하고 시설선생님과 학교 선생님, 친구의 지지를 높게 지각할수록 자아존중감이 높다고 하였다(홍영미, 2010). 문지윤(2011)은 시설보호 아동의 긍정적 정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시설 가족지지와 아동 기질의 사회성, 학교 교사지지 순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선행연구들은 원가족과 분리되어 보호시설에서 생활하게 된 아동들이 자신의 원가정을 벗어나 시설에 오기까지 겪게 되는 부정적인 경험들이 시설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오히려, 아동의 자아존중감, 적응유연성과 같은 기질특성과 사회적지지에 따라 이들이 얼마든지 잘 적응하고 성장할 수 있음을 함께 제시해 주고 있다.

최근 들어 시설보호보다 위탁가정과 같은 아동보호 서비스를 더 장려하고 있으나, 보건복지부(2013) 자료에 따르면, 2012년 12월 31일 현재 우리나라 280개 시설에서 16,523명의 아동들이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어, 아동보호서비스 중 시설보호는 여전히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최근 아동의 시설입소 사유를 보면, 부모 사후가 아닌 이혼이나 별거로 인해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에 보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이순형 외, 2001; 김경희 외, 2009; 홍영미, 2010; 구차순·이승민, 2011).

이러한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시설 입소 아동은 부모와의 분리라는 힘든 외상 사건을 대부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독립을 준비해야 되는 제도적 분리과정을 다시 경험해야만 한다. 부모와의 분리라는 첫 번째 분리 경험 이후,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다 다시 시설 퇴소를 해야만 하는 상황은 어떤 의미에서는 두 번째 분리, 즉 재분리를 의미할 수 있음을 고민해 볼 수 있다.

아동기 외상은 청소년기에 감정적, 행동적, 인지적, 사회적, 신체적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Avery and Freundlich, 2009). 부모와의 강제 분리라는 시설입소와 관련한 외상 사건에 이어, 이러한 외상 사건에 대한 치유과정이나 극복과정 여부에 상관없이 혹은 그와 무관하게 만 18세가 되면 다시 시설에서 퇴소해야 하는 것은 오히려 보다 더 강력한 반복 외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왜냐하면 만 18세 이상의 시설거주 청소년의 양육시설 퇴소 역시 비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퇴소에 대한 체계적인 준비 없이 퇴소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혜연 외, 2007). 외국의 선행연구(Cote, 2006) 역시 독립생활에 대한 준비를 하지 못한 위탁 가정 청소년들이 생산적인 대처 행동을 방해받고 정체성의 혼란을 경험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제시하고 있다.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던 청소년들이 시설 퇴소 후 독립하는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자립지원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주거 마련 문제, 안정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겪는 지독한 생활고(권지성, 2007; 중앙일보, 2014. 4. 8; 중앙일보, 2014. 5. 18)로 나타나고 있다. 권지성(2007)은 시설을 퇴소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의 경험을 '두 번 버려지는', 혹은 '내던져지는 경험'으로 표현한 바 있다.

사실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란 청소년들에게 시설 퇴소라는 것은 원가족을 대신해서 지지체계가 되어 주었던 시설과의 분리라는 점에서 예정된 또 하나의 외상 사건임에는 분명하다. 따라서 어린 시절 부모와의 분리 외상을 겪고 성장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경우, 만 18세가 되어 다시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상황은 재분리라는 외상의 반복 경험에서 접근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부모 분리라는 심리·정서적 어려움을 겪은 이후 다시 시설을 떠나야 하는 재분리라는 측면에서 이러한 반복된 분리 경험이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들에게 어떠한 의미를 주는지 밝혀내는 것은 향후 시설아동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지원하는데 매우 필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또한, 아동기의 부정적인 외상경험들은 정신병리 발달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특히, 전 생애에 걸쳐 우울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Maercker et al., 2004; Kendler et al., 2006)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선행연구들에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의 부모 분리 경험과 퇴소라는 재분리 경험은 함께 다루어지지 않았다. 시설보호 아동과 관련된 소수의 선행연구들은 시설 아동을 대상으로 부모 분리 경험만을 다루거나(구차순·이승민, 2011), 아동양육시설에서 자라고 퇴소한 퇴소생의 퇴소 이후 경험만을 각각 다루고 있을 뿐이다(권지성, 2007; 권지성·정선옥, 2009). 구차순과 이승민(2011)은 '상처를 삭이며 기다림'으로 시설아동의 부모 분리에 대한 대처 경험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권지성(2007)은 아동양육시설에서 6년 이상 생활한 후 퇴소 5년 이상 경과한 퇴소생을 심층 면접하여 퇴소생의 삶의 의미를 구성하였다. 권지성과 정선옥(2009)은 퇴소 후 생활 역시 많은

상처와 아픔을 간직한 채 외롭게 성장해 나가는 힘든 과정임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선행연구는 부모 분리로 인한 외상 이후 시설 퇴소라는 재분리를 반복된 외상이라는 측면으로 함께 다루어 주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시설에 입소하면서 겪는 부모 분리 경험과 이후 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시설과의 재분리를 앞둔 준비 경험을 분석하여 향후 이들을 위한 사회복지 개입 방안을 마련하는 데 있다. 따라서 시설입소 과정에서 겪게 되었던 부모 분리 경험과 이후 만 18세가 되어 더 이상 시설에 머물지 못하고 다시 시설 분리를 해야만 하는 퇴소 직전의 청소년들에게 부모 분리 경험과 시설 퇴소라는 재분리 준비 경험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색하여 이해하고자 한다. 본 연구목적에 근거한 연구 질문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의 부모 분리 경험과 시설 퇴소를 앞둔 상황에서 재분리 준비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2. 문헌 고찰

1) 시설아동의 부모분리 경험

이순형 외(2001)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가 생존해 있는 시설아동의 경우 부모가 생존해 있지 않은 아동에 비해 내면화 행동문제의 점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부모 분리는 시설아동에게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큰 상실과 고통, 분노를 갖게 하여 이후 부정적인 정서문제 발생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정선옥(2002)은 시설보호 이전에 부모-자녀관계를 냉정함과 무관심한 것으로 지각할수록, 관계단절 사건을 많이 경험할수록 심리사회적 적응에 문제를 많이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면서,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을 위해서는 시설보호 이전의 원가족 생활 및 현재의 시설생활에서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애착관계 경험이 중요함을 제시하고 있다.

Lawrence와 Carlson(2006)의 연구에 의하면, 부모와 분리를 경험하면서 위탁가정으로 배치된 아동의 경우,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으면서 자신의 가정에서 생활하는 아동보다 오히려 행동문제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아동의 부적응에 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학대경험이 아닌 친부모와의 분리경험임을 보고하였다. 구차순과 이승민(2011)은 아동의 경우, 부모의 상황을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부모와의 분리를 부모의 사랑이 철회된 것으로 해석하며, 상실, 거절, 굴욕, 무기력, 무가치 등의 감정과 함께 버려졌다는 데 대한 분노와 함께 자신에 대한 죄책감과 부끄러움을 갖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분리경험은 애착형성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아동의 이후 정서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선주·권정혜, 2004). 시설아동은 부모로부터 분리로 인한 불안정한 정서경험을 하고 있으며, 정서적·행동적·심리적 측면에서 다양한 임상적 증후군을 보이고 있다(김현자 외, 2008). 또한, 친가족과의 분리는 아동들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큰 영향을 주는데 이때의 적응이 인생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김경민·정익중, 2009). 윤운

영과 유금란(2013)은 외상적 상실(traumatic loss)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외상사건으로 경험되는 가장 슬픈 사건 중의 하나로 부모의 이혼을 언급할 정도로 부모와의 헤어짐 또는 상실은 아동 청소년들의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과급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모로부터의 분리에 아동이 보이는 반응은 다양하며, 원가족 분리를 경험한 시설보호 아동이 겪는 정서적·행동적 문제는 동일하지 않고 개인차가 존재한다(정선옥, 2002). 오히려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연하게 잘 적응하는 아동들에 관한 선행연구(양승연 외, 2012)가 있다. 이러한 개념을 외상 후 성장(PTG: Post-Traumatic Growth)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려운 역경에도 불구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잘 대처해 나간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된 변화로서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을 잘 설명하는 것으로 적응탄력성(resilience)을 언급하는데, 이는 단순히 이전의 평형 상태로 '되돌아감(bouncing back)'이 아닌 주어진 역경을 이겨내고, '앞으로 더 나아감(bouncing forward)'의 의미로 최근에 이해되고 있다(Walsh, 2002).

Waite와 Shewokis(2011)는 어린 시절 불행한 경험으로 학대와 방임, 부모 분리 또는 이혼을 아동기 외상으로 정의하고, 이러한 불행한 아동기 경험은 발달적 취약성을 강화할 수 있으므로 우울에 대한 적응탄력성(resilience)과 보호요인(사회적 지지, 부모애착 등), 위험요인의 역할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윤명숙과 김남희(2013)의 연구에 의하면, 이혼가족 자녀들이 사별가족 자녀들에 비해 자아탄력성, 친구지지, 부모지지, 외상 후 성장 수준이 유의미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시설에 오기 전에 부모의 이혼 등 여러 가지 불행한 상황들을 경험하고 왔음을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의 부모 분리 경험과 이후 시설에서 퇴소를 앞두고 겪게 되는 일련의 경험들에 대한 관심과 개입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모든 아동들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미 원가족으로부터 거부당한 경험이 있는 아동들은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든지 상관없이 누군가가 그들을 사랑해주기를 희망하고 있다(Allen and Vacca, 2011). 구차순과 이승민(2011)은 시설보호 아동의 원가족 분리에 대한 대처 경험을 '상처를 삭이며 기다림'으로 구체화하기도 하였다.

2) 시설 퇴소 관련 선행 연구

시설보호 청소년들은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떠나 다른 거주지를 구하고 직업을 얻는 등 사회 속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해나가야 한다(이경상, 2011). 이는 시설을 떠나 경제적, 심리적, 사회적으로 독립하여 살아가야 하는 것으로 부모와의 분리를 경험한 아동들이 생활했던 시설과의 분리라는 또 다른 분리를 준비하는 예정된 과정이다. 보건복지부는 2007년 4월부터 아동발달지원계좌(CDA)를 도입하여 아동의 건전한 퇴소를 준비하게 하고, 아동양육시설에 자립지원전담요원을 배치하여, 아동복지시설 퇴소자를 위한 공동생활가정 매입 임대사업과 전세주택 지원사업을 도입키로 하였다(김인아·조진영, 2008). 그러나 선행연구들은 퇴소 청소년들이 이러한 제도적 지원을 받기란 어려운 실정이며, 이로 인해 퇴소 후 오히려 공식적·비공식적 지원의 단절로 인해 매우 어려운 생활고에 시달림을 보고

하고 있다(권지성, 2007; 이해연 외, 2007).

김인아와 조진영(2008)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개인·시설·지역사회체계로 나누어 살펴보았는데, 학교생활을 잘 할수록, 시설종사자와의 유대가 강화될수록, 시설에서 자립서비스를 제공해 줄수록, 지역사회의 시설과 전문기관을 적절히 잘 이용할수록, 지역사회의 활동에 잘 참여할수록 자립생활준비가 잘 되고 있으며, 세 체계가 잘 발달할수록 자립생활준비 정도가 높아짐을 제시하였다. 이경상(2011)은 아동양육시설, 공동생활가정, 중장기청소년쉼터에서 거주하는 11세 이상 청소년을 대상으로 자립준비 실태를 조사하였는데, 건강관리, 자아성장, 일상생활관리, 성·결혼·부모교육, 대인관계, 자금관리, 지역사회자원 활용은 보통 이상의 자립준비를 보였으나, 주거마련관리, 진로탐색 및 취업, 직장생활유지에는 미흡한 자립준비를 보여줌을 보고하였다. 외국의 경우에도 위탁가정 청소년이 성인기로 자립을 이행하는 중요한 이슈로 자기 결정, 조화/협동, 관계의 중요성, 가족의 중요성, 위탁 보호 경험, 자립 프로그램, 장애와 관련된 문제들을 언급하였다(Geenen and Powers, 2007). 이와 같이 시설보호 청소년들의 퇴소와 관련한 선행연구들은 자립 준비에 초점을 두고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시설로부터의 퇴소가 주는 심리·정서적인 부분을 충분히 다루어 주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퇴소를 앞 둔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분리되어 독립을 해 나가는 데 직면한 문제들을 부각시켜 다룰 뿐 이들이 시설로부터 분리된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그들의 관점에서 깊이 있는 내면의 목소리를 충분히 다루지 못한 한계 또한 갖고 있다.

한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연구(권지성, 2007; 권지성·정선옥, 2009)는 시설 퇴소생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낙인과 차별, 응어리와 상처의 흔적을 가진 채 살아가고 있음을 통해 퇴소 후 어렵고 힘든 삶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다. 시설보호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면 시설을 퇴소해야 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은 이들의 자립준비 실태나 퇴소과정 및 이후 생활에만 주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러다 보니, 시설입소 과정에서 겪은 부모와의 분리라는 외상사건 경험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이후 다시 시설퇴소라는 재분리 준비경험에 관해 연관 지어 살펴보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이러한 부모 분리 외상과 퇴소 전 준비 경험을 함께 다루려 하는 것은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이 겪은 외상과 외상 후 성장이라는 관점에 대한 의미 있는 탐색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시설 퇴소를 앞둔 청소년들에게 있어 부모 분리 경험 후 퇴소가 주는 재분리 준비 경험과 의미는 무엇인지, 그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심층적으로 접근하여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3. 연구방법

1) 연구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전라북도 지역 아동양육시설에서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로서, 시설 퇴소를

1-2년 정도 앞두고 있는 만 16~17세의 고등학생들이다. 먼저, 아동양육시설 실무자를 통해 연구의 목적과 인터뷰 내용에 대해 설명을 충분히 한 후, 참여를 희망하는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였다. 개별 인터뷰는 고등학생인 연구 참여자의 일정과 기관의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여 편안한 시간을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주로 자유로운 주말을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인터뷰를 진행하기 전 연구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후 연구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 특성

연구참여자	성별	연령	입소연령	입소 이유	시설거주기간	원가족 접촉 여부
참여자 A	남	만16세(고2)	7세	부모 이혼	11년	입소 3년 후 형 입소, 부와 가끔 연락
참여자 B	남	만16세(고2)	12세	부모 이혼	6년	형과 함께 입소, 부와 가끔 연락
참여자 C	남	만16세(고2)	3세	부모 이혼	15년	부와 가끔 연락
참여자 D	여	만18세(고3)	10세	부모 이혼	9년	모와 가끔 연락
참여자 E	여	만18세(고3)	5세	부모 이혼	13년	부, 모와 따로따로 연락

(1) 참여자 A

참여자 A는 고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인 만 16세 남학생으로 퇴소를 2년 정도 남겨두고 있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참여자의 부가 참여자와 2살 터울 형을 함께 양육하던 중 가정형편이 안 좋아져 참여자만 7세 때 시설에 맡겨졌다. 부모와의 헤어짐보다도 어린 나이에 형과의 헤어짐이 더 애뜻하였으며, 그 후 부의 형편이 더 안 좋아져 3년 후 친형이 같은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형이 시설에 왔을 때 반갑고 든든했으며, 떨어져 있다 시설에서 만나니 형에 대해 더 애뜻함이 생긴 것 같다고 했다.

참여자가 중학교 1학년 때쯤 부는 새어머니와 재혼하였으며, 현재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 명절이나 휴가 때 부의 집에 다녀오기도 하고, 부와 가끔 연락을 하며 지내고 있다. 친부모님은 이혼 후 서로 연락하지 않지만, 참여자는 친모가 시설로 연락한 이후, 가끔씩 친모와 연락하고 있다. 아직 시설에서 퇴소한다는 것이 크게 실감은 나지 않지만, 시설을 퇴소하고 호주에서 워킹홀리데이 체류를 하고 있는 형이 있어 어느 정도 의지는 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렇지만 정작 참여자는 퇴소 후 친형이 있는 곳보다는 친한 학교 친구와 같은 대학에 진학하여 함께 생활하고 싶은 계획을 갖고 있다.

(2) 참여자 B

참여자 B는 퇴소를 2년 정도 남겨두고 있는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모가 중국인인 다문화 가정의 청소년이다. 어릴 때 부모 이혼으로 엄마와는 연락이 끊긴 상태이고, 아버지와 2살 많은 형과 함

게 살았다. 일 때문에 아버지가 집을 자주 비워 참여자와 형 둘이만 있는 날이 많았던 참여자는 결국 초등학교 5학년 때 형과 같이 시설에 맡겨졌다. 부모의 이혼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들을 놓고 가 버린 엄마에 대해 배신감을 느껴 싫다고 표현하는 형과 달리 참여자는 엄마에 대한 기억은 없지만 원망보다는 그립기만 하다고 했다. 퇴소 후 엄마를 찾고 싶은 마음도 있다.

참여자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시설에 입소하게 되어 시설 거주 기간은 상대적으로 짧지만, 시설에 오기 전까지 부모부터 제대로 양육을 받지 못한 기억으로 인해 오히려 시설에 온 게 더 나았다고 표현하였다. 또한, 다시 선택권을 준다고 해도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가정보다는 차라리 시설을 선택할 거라고 했다. 먼저 퇴소하여 대학에 다니고 있는 형이 가끔 시설에 찾아와서 만나고 있으며, 퇴소 후에는 자립생활관이 있는 지역의 대학을 진학하여 친구들과 같이 지내고 싶다고 하였다.

(3) 참여자 C

참여자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3세라는 비교적 어린 나이에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현재 만 16세의 고등학교 2학년 남학생으로 시설 거주 기간만 15년째로 시설 내 최고참에 속한다고 하였다. 시설에서의 생활을 어느 정도 잘 알고 있으며, 외동이었다 보니 시설에서 만난 형들이 많이 의지가 되었다고 했다. 부모 이혼 후, 부가 시설에 데려다 주었으며 그 후로도 부는 차로 2시간 이상이 걸리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중학생 때까지는 두 달에 한번씩, 지금은 석 달에 한 번씩 꼬박꼬박 찾아오시곤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결합을 원하는 엄마와 다시 합치기 싫어한 아빠가 원망스럽고 뭔지 모를 좋지 않은 불편한 감정이 남아 있다.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들이 고아원이라고 부르는 이곳에 보내 고아 취급을 받게 한 부모가 원망스러울 때가 많았다고 한다. 왜 나를 시설에 보냈는지 직접 묻고 싶지만 아빠가 마음아파 하실까봐 그렇게 대놓고 묻지는 못한다고 하며 아빠에 대한 양가감정이 있는 듯 했다.

이후, 중 3 때쯤 엄마는 재혼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소식이 끊겼으나 가끔씩 엄마가 그립다고 했다. 시설을 퇴소한다는 것은 자유를 얻을 수 있다는 설렘을 갖게 하지만 두려움도 크다고 했다.

(4) 참여자 D

참여자는 만 17세의 고등학교 3학년 여학생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외가에 맡겨져 엄마와 떨어져 살았다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재혼한 엄마와 함께 살았다. 엄마와 새아빠가 싸우는 일이 잦았고, 참여자에게도 매를 자주 들어 무서웠다. 이후 초등학교 3학년 때 새아빠에게 매를 그만 줄여달라고 했던 말이 “죽여주세요”로 잘못 와전되어 그 일을 계기로 시설에 맡겨지게 되었다.

휴가 때 엄마 집에 갔다가 시설로 다시 돌아올 때는 뭔가 아쉬움이 남으며, 엄마와 헤어져 다른 친구들과처럼 매일 볼 수 없다는 건 속상했지만 새아빠의 체벌에서 벗어날 수 있어 시설에 온 후 마음이 놓였다고 했다. 엄마와 떨어져 시설에 올 때는 마음이 안 좋았지만 시설에서 퇴소하는 것은 정해진 계획을 다 마치고 떠나는 것이므로 다른 느낌의 분리라고 이야기하였다. 퇴소 후 대학에 진학할 계획을 갖고 있다.

(5) 참여자 E

참여자는 퇴소를 6개월 정도 앞두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만 17세 여학생으로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 5세 때 시설에 맡겨졌다. 시설에 맡겨지기 전에 2살 위인 오빠는 아빠와 살았고, 참여자는 엄마가 데리고 나와 외할머니에게 맡겨지게 되었다. 이후 엄마는 없었고, 외가에서 살던 중 아빠가 다시 참여자를 데려갔으나, 아빠는 오빠와 참여자를 제대로 돌보지 않아 오빠와 둘이 힘들게 지냈던 기억이 있다. 아빠는 얼마 후 참여자를 시설에 맡겼으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그 시설에서 자랐다. 중학교 1학년 때 엄마가 참여자를 데리러 왔을 때까지 아빠와 엄마 모두 연락하지 않았다.

중학교 1학년 때 엄마는 재혼하면서 참여자를 시설에서 데려갔으나, 새아빠가 참여자를 성폭행 할 것만 같은 그런 이상한 느낌이 든 후, 이곳을 선택해서 중학교 2학년 때 이 시설에 입소하게 되었다. 다른 친구들과 달리 부모에게 갔다가 다시 시설로 오게 된 경험이 있으며, 이 후 아빠, 엄마와 연락 하며 지내고 있다. 용돈 마련을 위해 주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으며, 엄마, 아빠가 둘이 맞지 않아 힘들었을 거라는 것은 알지만 그래도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참여자 본인은 더 잘 컸을 것 같다고 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와 떨어져 살면서 받지 못한 사랑과 애정에 대한 결핍은 시설에서 지내면서 보육사 선생님에 대한 애정으로 대리 표출되었고, 보육사 선생님의 사랑과 관심을 독점하고 싶은 마음은 점점 집착으로 변해간 것 같다고 했다.

다른 참여자들과 달리 굳이 본인이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을 숨기거나 하지 않으며, 아빠는 아빠대로 엄마는 엄마대로 힘들게 사는 모습을 보면 여기 시설에 있는 다른 친구처럼 아예 가족이 없었던 면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 시설을 퇴소하면 더 가난해질 것 같은 생각이 들며, 퇴소하게 되면 지금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누리지 못하고 더 나빠질 것 같고 이런 걱정을 하는 자신이 비참하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에 진학하여 살아갈 계획을 갖고 있으며, 집이라는 곳에서 혼자 편하게 살 생각을 하면 퇴소가 좋기도 하다고 했다.

2) 자료 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 자료 수집은 2014년 6월부터 8월까지 진행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들과 개별인터뷰를 2-3회 이상 진행하였다. 모든 인터뷰 내용은 녹음을 원칙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 참여자가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기관 내 상담실에서 인터뷰를 진행하였다. 필요한 경우 시설의 기관장과 청소년의 양해를 얻어 직접 시설에서의 생활을 참여관찰하기도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방법은 질적 사례연구 방법을 활용하였다. 사례연구란 단독의 혹은 작은 수의 사례들에 대한 매우 구체적인 연구이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방법이 동원되는 연구이다(Punch, 2005: 유기용 외, 2012에서 재인용).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부모 분리 경험과 시설 퇴소를 앞 둔 상황에서 재분리 준비 경험을 깊이 있게 탐색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례의 상황 속에서 연구 과정이 이루어지며, 다양하고 특수한 상황을 설명하는 연구자의 일련의 과정을 통해 이해하는 사례연구 방법

(Stake, 1995)이 보다 적절하리라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현장을 중심으로 수행되고, 자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다양한 형태로 자료수집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청소년의 생활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이동전화 속 사진이나 동영상, 음악 파일에 대한 자료도 사전에 동의를 얻어 제공받을 수 있었다. 연구 참여자별로 이루어진 사례에 대한 분석을 한 후, 사례 간 분석을 통해 부모 분리 경험과 이후 퇴소를 앞 둔 상황에서 재분리 준비경험에 대한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주제들을 찾아 범주화하였다.

3) 연구의 엄격성 및 윤리적 고려

본 연구자들은 연구 과정 동안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하여 여러 가지 방법을 모색하였다. 먼저, 연구 참여자의 인터뷰 내용을 보다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하여 시설의 담당자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극 요청하여 제공받았다. 연구가 이루어지는 동안 처음 인터뷰 준비부터 분석에 이르는 전 과정에 걸쳐 연구자들은 각자의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전 과정에 함께 참여하였다.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가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면서 연구의 타당성을 높였다. 또한, 연구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경계하기 위하여 연구자들과 함께 질적 연구를 수행한 경험이 있는 박사과정 이상의 연구자들로부터 지속적인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여 연구 과정 내내 적극 반영하였다.

연구 참여자인 청소년들과의 라포 형성을 위해 보다 편안하게 인터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면접을 시작하기 전 연구 참여자와 가볍게 인사 나눌 수 있는 사전 준비 시간을 충분히 마련하였다. 그리고 시설 담당 선생님의 조인을 얻어 함께 점심 식사도 하고 차도 마시며 상호 긴장감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연구에 임하기 전에 참여자에게 충분히 연구 내용과 목적을 설명해 주었으며 자발적으로 연구에 참여할 것이라는 동의를 구하고 참여 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면접은 녹음 허락을 통해 이루어졌고, 연구 목적 이외에는 절대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서면과 구두로 약속하였다. 인터뷰 도중 연구 참여자의 경험을 이해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시 질문하여 확인하였으며, 직접 대답하기 어려운 내용은 참여자의 선택에 따라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를 통해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하였다.

4. 연구결과

1)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 부모와의 분리 그리고 시설 입소

(1) 영문도 모른 채 오게 된 시설

연구 참여자들은 부모님의 이혼으로 인해 한부모와 생활하던 중 그마저도 여의치 않아 양육을 맡은 부모와도 떨어져 외가나 친가에 맡겨 생활하거나 제대로 된 돌봄을 받지 못한 채 생활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부모 손에 이끌려 시설에 오게 되었다. 시설에 맡겨지면서 얼마나 아빠에게 어떤 설명이나 이유도 듣지 못한 채 떠밀려 시설에 입소하였다.

맨 처음엔 아빠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여기에 왔었는데...그때는 별 얘기 안하고 여기 왔다가 차츰 차츰 집에 갔다 오면서 한마디씩 듣고 그랬어요.<참여자 A>

근데 그때는 몰랐어요. 자고 일어났는데 여기로 데려 오시더라구요. 그냥 여기서 살아야 된다고 하고 가셨어요.<참여자 B>

세 살 때 일도 그만두시고 어려워지면서 저를 여기에 보내신 거 같은 추측이 돼요. 직접 (시설에 맡긴 이유를) 물어보진 못했어요.<참여자 C>

여기 왜 와야 되는지 이유는 잘 모르는데...엄마가 저를 여기로 보내셨어요.<참여자 D>

다섯 살 때(시설에 맡겨졌고)...아빠한테 들은 얘기는 없어요.<참여자 E>

비록 어린 나이이긴 했지만 왜 얼마나 아빠와 같이 살지 못하고 떨어져 시설이라는 낯선 곳에서 생활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었다더라면 조금 더 부모를 이해했을 텐데 하는 진한 아쉬움 또한 갖고 있었다.

처음부터 부모님 사정 얘기를 듣고 그랬더라면 좀 더 많이 이해는 됐겠죠.<참여자 A>

만약 이런 상황을 말해주었다면 나왔을 거 같아요. 이해해 드렸을 거 같아요.<참여자 B>

그걸 직접 물어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치만 얘기해 주면 서로 궁금한 것도 풀리겠죠. (아버지랑 저랑) 서로 좋아지겠죠.<참여자 C>

(2) 슬픔 그리고 깊어지는 부모에 대한 원망

참여자들은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설이라는 곳에서 부모와 떨어져 생활하면서 슬프기도 하고, 그런 슬픔이 더해질 때마다 부모에 대한 원망 또한 깊어졌다.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시설로 보냈는지 생각하면 할수록 속상한 마음뿐 차라리 어느 땐 아예 가족이 없는 게 속편할 것 같기도 하였다.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부정적인 마음이 많았어요. 부정적인 말을 막 내뱉었어요. 어렸을 때는 부모님 아빠에 대해 악감정이 좀 있었어요. 싫었어요...제가 그리고 아버지하고 썩 친한 것도 아니고 좀 닮음도 많아요. 아버지하고 안 맞는 마음도 많고 솔직하게 말 안 해요. 아버지한테 좀 거리감이 있어요. 왜 나를 시설로 보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좀 있죠. 아빠에 대한 원망 휴~(한숨)...저는 아빠를 싫어해요. 저는 좀 그런 게 있어요. 제 마음속에...그런 마음이 쌓여 있죠.<중략>사람들이 여기를 부르는 게 시설 보면 고아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분명 저희는 엄마 아빠가 계시는데 왜 저희를 고아라고 그러나 기분이 나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점점 엄마, 아빠를 원망하게 되죠. <참여자 C>

가끔은 진짜 차라리 여기 있는 애들처럼 아무도 가족이 없는 게 부럽기도 해요. 그냥 애들은 절 부러워하는 애들도 있는데 저는 다른 애들처럼 아무도 혈연관계도 없고 그런게 차라리 편할 거 같고...막 엄마가 아빠 욕하는거 들을 때 싫어요...<참여자 E>

또한, 부모의 이혼이 결정적인 이유였다면, 자녀인 내가 이혼을 막을 수는 없었겠지만 나를 좀 더 배려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본다.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이혼에 대해 조금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만들기도 했다. 만약 이혼하지 않았더라면 내가 좀 더 잘 컸을 거란 아쉬움도 드러내었다.

이혼이란 걸 봤을 때는 좀 부정적으로 생각이 드는데요. 상황을 좀 안 좋은 상황이 되었을 때는 이혼이란 거는 좀 필요한 거는 같은데 아예 남이 되어서 각자 생활을 한다는 건 안 좋은 거 같아요. 그렇게까지 화목하지는 않았을 텐데 일반 가정처럼 지냈겠죠. 저라면 이혼을 안했을 거 같아요. 이혼을 안 하고 열심히 사는 대로 아이들 키우고 제가 좀 책임감 있게 행동을 할 거 같아요. 아이를 좀 더 배려하는 방향으로 선택을 할 거 같아요.<참여자 A>

이혼 생각을 하면 씁쓸해요. 엄마가 없어서 챙겨주는 사람도 (없고) 아빠도 일하시니까 혼자 집에 있고, 만약 부모님이 이혼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단 좋았겠죠. 일단 엄마랑 같이 컸다는 게 좋았을 거 같아요.<참여자 B>

솔직히 이혼도 그럴 이유가 있으니까 했겠지 그렇게 느꼈어요. 처음에는 무지 싫었는데요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크니까 생각이 달라지더라고요. 어렸을 때랑은, 되돌릴 수 있다면 (이혼을) 되돌리고 싶죠. 그런데 그 상황이 이제 지나가 버렸으니까 다시 되돌릴 수 없으니까 놔두는 거죠. <참여자 C>

이혼, 남이 하면 그렇게 나빠 보이거나 그런 시선은 없는데 제가 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혼에 대한

시선이 끊어지지만은 않아요. 만약 이혼하지 않았다면 엄마가 힘들었을 거 같아요. 저는 잘 컸을 거 같아요. 다른 데 안 옮겨 가고 엄마랑 아빠랑 오빠랑 같이 살았을 거 같아요.<참여자 E>

(3) 어쩔 수 없는 그리움...체념

참여자들이 느끼는 슬픔과 부모에 대한 원망은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부모에 대한 어쩔 수 없는 그리움으로 남게 되었다. 그렇지만, 시설에서 살게 된 상황을 체념하고 받아들이면서 시설 생활에 나름대로 적응 해나가게 된다. 헤어져 연락이 끊긴 엄마가 어느 날 시설로 연락을 한 후 그리움 또한 깊어졌지만, 참여자들은 점점 체념해 간다. 한 참여자는 시간이 흘러 퇴소를 하게 되면 헤어진 엄마를 찾아보고 싶은 마음도 든다고 하였다.

맨 처음엔 이상하긴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적응이 되더라고요...맨 처음엔 그냥 거기(집)서 살고 싶었는데요. 한두번 그런 생각 하다보니까 어차피 안되는 거 같아가지고 여기 와서 열심히 지냈죠...그냥 그러겠지 하고 넘겼죠. 내가 바란다고 해도 아빠랑 형이랑 사는 건 현실적으로 안 되니까 그런 거 같아요...제가 (어렸을 때 헤어진) 엄마랑 연락하기 전까진 크게 그런 생각은 안했는데 연락하고 나니까 좀 생각나고 그랬어요. <참여자 A>

나중에 엄마를 찾아보긴 할거예요. 원망은 전혀. 그렇기만 해요. 형은 엄마를 찾기 싫었어요. 형아는 일단 엄마가 자기를 놓고 간 것에 대해서 배신감을 느꼈대요. 그래서 싫대요. 형은 이해해요. 그렇지만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항상 그리워요. 저는 별로 원망 같은 거 안 해요. <참여자 B>

지금은 그냥 저는 여기서 적응한 거 같아요. 스스로 그냥 보고 배우고 그런 거 같아요. <참여자 C>

옛날에는 (엄마랑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을) 조금 했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거기서 엄마랑 같이 살았으면은 학교 다니면서 새아빠랑 꿈도 못 찾았을 거 같고 지금 알고 있는 애들하고도 못 알았을 거 같아서 오히려 지금이 더 나은 거 같아요.<참여자 D>

2) 이별 그 후 시설에서의 길고 긴 사춘기

(1) 시설에서 산다는 것만으로도 커다란 아픔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혹독한 사춘기를 보냈다. 학교 친구들에게 시설에서 생활하는 걸 굳이 말하거나 혹은 들리고 싶지 않았던 그런 시절이었다. 단지 시설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참여자는 괴롭힘의 대상이 되기도 하였고, 그냥 부모가 없다는 것, 추억을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상실과 아픔이었지만 부모로부터 받지 못한 사랑에 대한 결핍이 또 다른 누군가를 향한 집착으로 향하는 것을 알았을 때 그 또한 더한 아픔으로 다가왔다.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생활이 오래될수록 오히려 더 작아지고 약해지는 것만 같았다.

제가 사춘기 때 중 2 때 그럴 때는 차에서 내릴 때 누가 볼까봐 두리번거리고 그랬는데 학교에서. 제가 (시설에 산다고) 말하면 제 기분이 그런데...내가 내입으로 기관에서 산다고 말은 못 하죠. 그냥 여기 사는 게 답답하고 성격도 안 나오고 그래서 성격도 좀 까칠해졌던 거 같아요.<참여자 A>

제가 여기 오래 살았으니까 '네가 이렇게 해야지, 네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생활 잘해야지' 신입생들에 비해서는 저는 너무 막 귀찮아요. 크니까요. 어렸을 때는 잘했는데 생각하는 게 귀찮아요. 제 생각에는요. 더 오래 살았으면 더 잘해지는 게 아니라 더 못해지는 거 같은데 제 생각에는 잘해지는 것보다는 더 늦춰지는 거 같아요. 왜냐면 더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 같고...<참여자 C>

사춘기 때 한 때 조금 엄청 그런 건 아닌데 짜증이 엄청 늘고 아무하고도 말하고 싶지 않고 중학교 때 많이...(힘들었어요)<참여자 D>

거기서는 맨날 똑같았는데 놀고 예배드리고 놀고...근데 학교에서 좀 그런 게 심했어요. 괴롭힘. 거기에서 사는 애 저랑 또래 한명 여자애랑 그 애 오빠. 친구 오빠가 장애인이었었는데 셋이 이렇게 거기 학교 같이 다니는데 거기 (시설) 산다고 좀 놀림을 많이 당했어요...<중략> 근데 제 생각인데 계속 이렇게 시설 다니면서 애정 같은 게 뭐지 집착이 생긴 거 같아요. 거기 있을 때 저희 키우시던 선생님을 엄청 좋아했는데 질투가 심해가지고 자꾸 빼졌어요. 다른 애랑 자꾸 뭐하고 그러면. 근데 그게 너무 심해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제가 질투만 한게 아니라 싸가지 없게 구는 거예요. 말 씌고 그래서 선생님이 화나가지고 절 때린 적이 있거든요. 처음에는 어려가지고 그거를 잘 몰랐는데 엄마, 아빠랑 떨어져 살면서 시설 선생님한테 집착하고 그런 영향이 있는 거 같아요. 그리고 엄마는 엄마라서 좋은 건데 만약 엄마가 죽는다면 슬플 거 같고 엄마가 어디 아프다면 걱정도 되고 그러는데 엄청난 정은 아니에요. 엄마를 엄청 좋아하긴 하는데 여기 있던 이모를 엄마보다 더 사랑했어요.<참여자 E>

(2) 평범함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들

참여자들은 시설에서의 규칙과 규율은 필요하고 지켜야 된다는 것은 알지만 어느 쉰 자유를 구속하는 너무 답답하기도 한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친구들과 하교 후 어울려 놀고 싶지만 시설에서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허락되지 않아 맘껏 어울려 놀지 못했다. 또한, 다른 또래 친구들에게는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자신들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들이었다고 했다. 부모님과 함께 여행가는 것이 부러웠고, 체육대회 때 부모님이 학교에 찾아온 친구들이 부러웠고, 친구 집에 부모님의 허락만 받으면 언제든지 놀러갈 수 있는 친구들의 자유가 무척 부럽기만 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엄마를 매일 볼 수 있는 친구들의 일상이 참여자들에게 허락되지 않았던 시설에서의 시간들이었다.

그냥 가족 여행갈 때 부럽고...<참여자 B>

솔직히 여기 살면서도 나가도 싶고 가정 애들처럼 놀지도 못하고 촌이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추억도 그리 많지 않을걸요. 저희 많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친구들이 어디 가자고 하면 여기 시설에서는 안 된다고 거절 많이 했었어요. 친구들이 너는 왜 안 되냐 저는 마음으로는 가고 싶는데 시설에 살고 있으니까 짜증도 나고 그래서 그런 면도 있으니까 애들이 가출도 몇 번 할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자

유도 한번 느껴 보고 싶고...그치만 저희는 이 시설에 들어온 이상 여기 규율을 지켜야 할 거 아니에요. 룰을 지켜야 되니까 여기에 맞게 살아야 하니까...〈참여자 C〉

그냥 다른 애들은 되게 평범한 건데 아침에 엄마 얼굴 보고 다시 저녁에 보고 그러는데 휴가가 끝나면은 그럴 수 없으니까 그게 조금...또 그냥 애들이 친구네 집에 놀러갈 때 엄마가 맞아 줄때나 그럴 때 초등학교 때는 체육대회 같은 때 다른 애들은 다 엄마가 왔는데 그때 나는 엄마가 아니니까 그 때 조금 아쉽다...학교 끝나고 아 평일이나 휴일이나 여기서는 정해진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다른 친구들과 이랑 같이 못 놀고 그런데 그런 것도 애들은 많이 불편해 하고 또 학교 끝나고 애들 만나고 귀가 시간이 있으니까 그 귀가 시간이 너무 짧아서 친구들 만나는 데도 불만이 있고, 거의 학교 끝날 시간 때쯤 차가 오면 그 차를 타고 오고 주말에는 5시, 5시~6시까지 돌아와야 되고, 애들 외박할 때 되게 어렵게 돼요.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놀고 싶은데 여기에서도 여기만의 규칙이 있으니까 그 부분이 되게 답답해가지고 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래도 여기 나가면은 지금까지 제가 해온 것들이 다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서 그 생각하면 다잡았던 거 같아요. 〈참여자 D〉

여기 사는 게 좀 불편한 건 있죠. 규칙 그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집처럼 편한 게 없어요. 저는 애들은 집에서 안 살아봤으니까 잘 모르는데 저는 집에서 살았잖아요.〈참여자 E〉

3) 처음과 전혀 다른 느낌의 재분리 준비. 시설 퇴소 즈음

(1) 부모 분리와는 전혀 다른 시설과의 재분리

참여자들은 자신이 결코 원하지 않았던 부모 분리와 만 18세 퇴소 규정에 맞춰 시설을 떠나 독립하게 되는 시설 퇴소라는 재분리는 전혀 다른 느낌이라고 하였다. 부모 분리와 시설 분리를 분리와 재분리라는 관점에서, 재분리는 보다 더 강력한 외상일지도 모른다는 연구자들의 선이해는 참여자들을 통해 그렇지 않은 전혀 다른 느낌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설에 올 때는 영문도 모른 채 떠밀려 왔지만, 퇴소를 앞두고 있는 지금 참여자들은 퇴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시설을 떠나는 것은 부모와의 헤어짐과는 전혀 다른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여기 시설에 들어왔을 때랑 여기를 떠나는 것은 달라요. 지금보다 경제적으로나 그런 건 모르겠는데 마음적으로는 편안하게 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음...뭔가 친구들 같은 거 학교 친구들과 같이 지는 거 좀 더 자유롭고 그래지는 거...〈참여자 A〉

여기는 또 올 수도 있으니까 놀러 올 수도 있고 볼 수 있잖아요. 요새는 전화도 할 수 있고 문자도 할 수 있고 만나서 술도 먹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크게 생각은 안 해봤어요...〈참여자 B〉

부모님하고 헤어졌을 때 분리랑 시설 퇴소하고는 다르죠.〈참여자 C〉

엄마한테서 떨어져서 왔을 때는 그 상황이 안 좋아서 온 건데 여기서 떠나는 것은 고등학교를 마치

고 떠나는 거니까 그런 다른 느낌.<참여자 D>

여기 왔을 때랑 떠나는 거는 좀 다를 거 같아요.<참여자 E>

참여자들은 시설 퇴소를 앞두고 본인이 원할 경우 대학 졸업 때까지 시설에서 머무를 수 있는 시설 연장에 대한 선택지를 두고 스스로 고민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참여자들은 후배들을 배려해서 연장하지 않고 퇴소하는 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연장은 애들이 불편해 할 거 같아요. 여기는 졸업하면 다 퇴소를 해요. <참여자 A>

저는 할 수 있으면 여기 계속 있고 싶어요.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있고 싶죠. 근데 나가야죠.<참여자 B>

여기 있으면 불편해요. 여기 애들도 있고 보기도 좀 그러잖아요. 창피하잖아요.<참여자 C>

더 머물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여기 계속 있으면은 더 혼자 못할 거 같아요. 고 3 졸업해서 나가면 충분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참여자 D>

여기서 장학재단 같은 게 있는데 확실히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다니면 될 거 같아요. 그래서 남을까도 생각중이에요. 근데 퇴소할 수도 있어요.<참여자 E>

(2) 두근두근 걱정 반 설렘 반 퇴소 준비.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

참여자들은 시설을 떠나 독립한다는 것이 조금 걱정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 설레고 떨린다고 표현하였다. 집에 다녀올 때마다 혼자서 지하철을 이용해 보기도 하고 주변을 둘러보기도 하며, 기관에서 제공하는 자립 프로그램을 통해 일주일 동안 혼자서 생활해 보기도 하였다. 어쨌든 걱정도 되고 두렵기도 하지만 그래도 여기를 떠난다는 건 그보다 더 큰 설렘을 준다. 한 참여자는 퇴소를 앞 둔 느낌을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과도 같다고 표현하였다.

고등학교 2학년이라서 막 그렇게 실감은 안 나는데 나가는 거 생각하니깐 좀 섭섭하고 새로운 경험 이잖아요. 떨리기도 하고 그렇죠. 저는 많이는 아닌데 가끔 집에 올라갈 때 그 때 많이 막 다른 데도 둘러 보고 여러 가지 탐색. 그냥 저 혼자 어디까지 갈 수 있나 그런 게 옛날에는 여기에서 다 보내주고 그랬는데 나가면 그런 걸 못하잖아요. 제가 혼자 잘 할 수 있나 그런 것도 해보고 지하철이랑 그런 것도 혼자서 타서 정거장도 가보고.. 집 같은 건 그렇게 크게 신경은 안 쓰이고요. 저 혼자 해결할 게 많잖아요. 혹시 잘못하면 어찌됐든 그런 두려움이 좀 큰 거 같아요.<참여자 A>

제가 뭐하고 살아야 할지 그게 걱정이예요. 좀 좋은 직장에 취직을 해야 돈을 많이 벌잖아요. 그치만 충분히 나가서도 잘 해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걱정은 되지만...<참여자 C>

그냥 처음에는 나가서 살면은 편하고 더 괜찮을 거 같았는데 가까이 오면서 일주일 간 자립 체험도 해보고 하니깐 옆에 힘들 때 같이 있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거기에서는 조금 부담감. 앞으로 혼자 해야 되니까. 지금은 그냥 막막하다는 생각.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설레기 보다는 막막해요. 퇴소한다고 생각하면 겨울, 겨울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춥고 그러니까 막상 나가면 내 앞에 아무것도 없고 나 혼자 다 해나가야 되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참여자 D〉

(3) 소중하게 품어보는 나의 바람과 희망.

참여자들은 시설 퇴소 후, 자신들이 살아갈 삶의 계획들을 막연하게나마 갖고 있었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장래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한 부푼 계획도 나름대로 갖고 있었으며, 대부분은 퇴소 후 부모님과 함께 살기 보다는 혼자 혹은 친구들과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는 그동안 따로 떨어져 생활했던 부모와의 물리적인 시간과 거리를 좁히지 못했음을 반영해 주고 있었다. 떨어져 생활하는 부모님보다는 늘 가까이서 접촉하는 친구와 함께 하는 미래를 고민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참여자는 부모와의 관계에서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갈등의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도 하였다.

학교에서 친구가 서울로 가면 저도 친구랑 같이 서울로 가려고 생각중이에요. 학교에서 저랑 친한 친구가 특수체육에 관심이 있는데 가게 되면 저랑 같이 가려고 학교는 정하지는 않았는데 서울 쪽으로 형이랑 같이 지내기보다는 그 친구랑 같이 지낼 생각도 하고 있어요. 열심히 알바 하면서. 〈참여자 A〉

딱히 생각은 안 해봤는데 자동차 관련 일을 생각하고 있어요. 형이 있는 곳보다는 저는 친구들이 있는 그냥 그곳으로 가고 싶어요. 자립생활관에 들어가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참여자 B〉

저는 여기 퇴소하면은 아빠랑은 못 살거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빠랑은 못 살거 같아요. 아빠랑은 살기는 좀 그래요. 불편해요. 좀 불편해요. 혼자서 잘 살아야죠. 그래도 아빠한테 몇 번은 가야죠. 솔직히 자식인데...아빠와 관계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거 같아요. 〈참여자 C〉

친구한테 의지할 거 같아요. 엄마 아빠 아니고, 제 상황을 잘 알고 이해해주는 친구. 학교 친구...아빠도 저 여기 나오면 집에서 같이 살자고 권하는데 저는 그냥 저 따로 살고 싶어요. 혼자서.〈참여자 E〉

참여자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자신들을 위해 퇴소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지원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들려주었다.

그런 거 좀 요리하기 집 청소하는 건 솔직히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 거는 다 알려주는데 여기 프로그램도 그런 게 있어요. 제 얘기를 할 수 있는 상담이나 자기 계발을 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붙여주셨음 좋겠어요. 특히 고 3 애들한테는. 그리고 시설에 대한 지원같은 거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솔직히 저를 후원해 주시는 사람이 계속 있으면 좋겠어요. 안 끊기고 여기를 퇴소하더라도 계속 연결이 되면 좋겠어요.〈참여자 E〉

참여자들은 퇴소 이후, 시설에 다시 찾아오는 선배들의 모습을 보면서 아직 퇴소 전이긴 하지만 어쨌든 잘 살아서 다시 꼭 멋진 모습으로 시설에 찾아오고 싶은 간절한 마음도 갖고 있었다.

홈커밍데이에는요, 싹 각이 나와요. 보면요, 나갔는데 생활을 잘 하고 있는 사람들은 와요. 근데 못하는 사람들은 못와요. 왜냐면 오면은 대망신이죠. 솔직히 자기 자신도 부끄러운데 오는 사람은 정해져 있죠. 딱 여기서 생활하는 거 보면, 홈커밍데이 때 당당하게 와야죠. 그래야죠. 그러기 위해선 진짜 그 기간 안에 잘 해야죠.<참여자 C>

딱 그려지지는 않는데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다른 친구들처럼 대학도 다니고 취직도 하고 그렇게... 저는요 나가서 여기 다시 올 때 좀 더 잘 돼서 좋은 모습으로 오고 싶어요.<참여자 D>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부모의 이혼으로 인하여 시설에 맡겨진 아동양육시설의 청소년들이 겪은 부모 분리 경험과 만 18세가 되면 퇴소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시설과의 재분리 준비경험을 보다 깊이 있게 탐색해 보려는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아동기에 겪었던 부모 분리라는 외상 사건과 시설 재분리라는 반복된 외상의 측면이라는 점에서 바라봄으로써 이들의 보다 나은 퇴소 준비를 돕기 위한 사회복지 실천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현재 고등학교 2-3학년에 재학 중이면서, 퇴소를 1-2년 정도 앞두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5명을 연구 참여자로 선정하여 인터뷰하였다. 부모의 이혼으로 인한 분리 경험과 이후 퇴소를 앞 둔 상황에서 퇴소라는 재분리 준비 경험에 대한 탐색 결과는 다음과 같다.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의 부모 분리 경험과 시설 퇴소를 앞 둔 상황에서 재분리 준비 경험은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 부모와의 분리 그리고 시설입소', '이별 그 후 시설에서의 길고 긴 사춘기', '처음과 전혀 다른 느낌의 재분리 준비, 시설 퇴소 즈음'이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시설에 입소 후 적응과정을 돕는 과정에서 부모 및 가족과의 분리에 대한 감정을 충분히 다루어 줄 필요가 있다. 본 연구 참여자들은 우연하게도 5명의 청소년 모두 부모 이혼 후 시설 입소 과정을 공통적으로 경험하였다. 이들은 부모의 이혼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되돌리고 싶다고 회상하면서 이로 인해 부모에 대한 원망 또한 담고 있었다. 또한, 부모 이혼은 어린 자녀 양육을 맡게 된 한쪽 부모가 생계와 돌봄을 모두 책임져야 하므로 제대로 된 돌봄을 하지 못하고 방임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시설에 오게 된 상황이나 부모 이혼에 대해 부모로부터 구체적인 얘기를 전혀 듣지 못한 채 오게 됨으로써 한쪽 부모와 접촉은 지속하고 있으나, 감정의 골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었다. 더군다나, 헤어진 다른 부모와 전혀 연락이 닿지 않는 상황 또한 끝없는 그리움을 가져오게 하고 결국 다시 이혼한 부모님에 대한 원망으로 되풀이되기도 했다.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설 내 적응과정 중에 부모 분리 감정을 충분히 다루어주고,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보육사와 팀 협력을 통해 아동의 부모 분리 외상을 충분히 다루어 줄 수 있는 인력과 프로그램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지역사회 내 정신건강 전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연계 체계 마련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과 부모들이 정서적인 유대감을 지속하고 바람직한 부모-자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부모와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는 개입 프로그램과 정서적 연계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청소년들은 시설에 올 때 영문도 모른 채 오고, 부모가 생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시설에서 살아야 하는지 직접 부모로부터 어떠한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오게 됨으로서 부모에 대한 원망이 내재되어 있었다. 그런 반면에, 접촉을 하는 부모는 접촉하지 않는 부모는 나름대로 그리움과 애잔한 마음 또한 같이 갖고 있었다. 비록 원망도 있지만, 기억이 남아 있지 않을지라도 엄마에 대한 그리움은 원초적으로 자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부 관계는 정리가 되었을지라도 엄마와 아빠의 자리는 자녀에게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에 부모-자녀 관계 측면을 지원해 주는 노력이 필요하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감정적인 거리만큼은 더 멀어지지 않도록 부모-자녀 관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한 이유는 아동양육시설의 최종 목표는 원가족 복귀라는 대전제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셋째, 사춘기 청소년들에게 시설에서 생활한다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숨기고 싶고 드러내 보이고 싶지 않은 낙인과도 같았다. 또래 친구들에게 허락되는 평범한 일상이 허락되지 않았던 시간들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이 시설에서 생활하면서 겪게 되는 아픔과 상실, 위축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심리·정서적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마련되어 개입해 줄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이 비록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지만 보다 더 나은 성장과 적응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강점을 찾아 주고, 또래들과 다른 환경에 자칫 위축되어 우울한 사춘기를 보내지 않도록 적극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 시설 내에서 혹은 지역사회 내 자원을 적극 활용하여 일대일 결연을 통해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에게 바람직한 성인 역할 모델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넷째, 시설 퇴소생들이 안정적으로 사회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퇴소 전부터 퇴소 이후까지 연속적이고 포괄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아직 퇴소를 경험하기 전인 퇴소 1-2년을 앞두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퇴소는 설렘과 희망의 느낌이었고, 이들은 퇴소 후 잘 되어서 다시 시설을 찾고 싶다는 포부를 드러내었다. 그러나 퇴소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권지성, 2007; 권지성·정선옥, 2009) 결과 시설 퇴소 후 생활은 이들의 기대와는 달리 결코 녹록치 않음을 보여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정된 퇴소를 부모 분리와는 전혀 다른 주어진 과정을 다 마치고 떠나는 '겨울에서 봄으로 가는 길목'으로 표현하였다. 시설 퇴소 이후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사회에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사후 관리가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선배 퇴소생들의 안정적인 사회 적응은 시설과 시설 청소년들에게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회 자원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부모 분리를 겪고 아동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만 18세가 되어 시설 퇴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재분리 준비 경험을 깊이 있게 이해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퇴소

를 앞 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을 도울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 분리 상황을 헤어질 당시 어린 아동의 입장에서 바라보다 보니 부모의 입장이라든지 그 당시의 상황에 대해 보다 포괄적으로 접근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당사자인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 그리고 그 가족과 시설의 담당 보육사 등의 관점에서 청소년들의 부모 분리 와 시설 퇴소에 관한 상황들을 조명해 볼 수 있길 제안한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아동양육시설 청소년 연구에서 함께 다루지 못한 부모 분리 경험과 이후 퇴소 준비 경험을 재분리의 측면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 이 연구가 시설퇴소를 앞두고 있는 아동양육시설 청소년들의 퇴소와 퇴소 후 삶의 질을 증진하는데 자그마한 보탬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참고문헌

- 구차순·이승민, 2011, “시설보호아동의 원가족 분리 대처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가족복지학』, 31(3): 31-60.
- 권지성, 2007,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퇴소 후 생활에 대한 문화기술지”, 『아동권리연구』, 11(1): 1-29.
- 권지성·정선옥, 2009, “아동양육시설 퇴소생의 퇴소 후 생활 경험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61(3): 229-253.
- 김경민·정익중, 2009, “위탁아동의 친가족 경험이 심리사회적 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사회복지학』, 25: 93-120.
- 김경희·강현아·안소영, 2009, “시설아동의 현황 및 쟁점에 관한 연구”, 『아동학회지』, 30(6): 405-416.
- 김보람·이경숙·박진아, 2007, “시설보호아동의 지능 및 정서, 행동 특성과 자아탄력성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 발달심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428.
- 김선주·권정혜, 2004, “6세 이전 부모와의 분리경험이 아동의 친구관계와 우울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임상』, 23(3): 637-655.
- 김인아·조진영, 2008, “아동양육시설 청소년의 자립생활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개발연구』, 14(3): 189-210.
- 김지애·이동귀, 2012, “외상 후 성장 집단의 판별 요인 연구”, 『상담학 연구』, 13(4): 1845-1859.
- 김현자·한성심·서명원, 2008, “양육시설아동의 정신건강과 아동복지적 접근”, 『아동복지연구』, 6(1): 29-47.
- 문지윤, 2011, “시설보호 아동의 기질 및 사회적 지지와 긍정적, 부정적 정서의 관계”, 『대한가정학회지』, 49(3): 79-86.
- 변은진, 2002, “시설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진로의식 성숙, 불안 및 내외통제성간의 관계”, 경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신은주, 1995, “시설아동의 복지증진 방안에 관한 연구-시설아동의 사회적응과 관련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양승연·오정란·권지성, 2012, “아동양육시설 아동의 적응유연성 형성과정에 대한 근거이론 연구”, 『한

- 국아동복지학』, 39: 93-126.
- 유기웅·정종원·김영석·김한별, 2012, 『질적 연구방법의 이해』, 박영사.
- 유안진·민하영·권기남, 2001, “시설아동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사회적 적응 : 학령기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9(3): 135-149.
- 윤명숙, 2013, “사회복지사의 외상경험과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의 관계에 미치는 사회적 지지의 조절효과”,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41(4): 174-200.
- 윤명숙·김남희, 2013, “부모상실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사별, 이혼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2): 177-201.
- 윤운영·유금란, 2013, “아동 및 청소년의 상실 경험에 대한 이해와 학교상담의 개입”, 『한국심리학회지: 학교』, 10(1): 241-262.
- 이경상, 2011, “시설청소년의 자립준비실태”, 『청소년학연구』, 18(10): 341-362.
- 이순형·이강이·성미영, 2001, “시설아동의 가족관계망에 따른 행동문제”, 『대한가정학회지』, 39(4) : 1-11.
- 이혜연·서정아·조홍식·정익중·김귀량, 2007, 『아동복지시설 퇴소청소년의 실태와 적응과정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정선옥, 2002, “시설보호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홍영미, 2010, “시설보호아동이 지각한 사회적지지 및 자아존중감과 행동문제와의 관계”, 『청소년학연구』, 17(12): 187-209.
- 보건복지부, 2013,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현황”, <http://stat.mw.go.kr>.
- 중앙일보, 2014, “500만원 쥐고 보육원 나서는 그들”, 2014년 4월 8일.
http://articl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14381732.
- 중앙일보, 2014, “강제독립 보육원생 관심과 지원 절실”, 2014년 5월 18일.
<http://joongang.joins.com/article/847/14710847.html?ctg=>.
- Allen, B., and Vacca, J., 2011, “Bring back orphanages - An alternative to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33: 1067-1071.
- Avery, R. J., and Freundlich, M., 2009, “You’re all grown up now: Termination of foster care support at age 18”, *Journal of Adolescence*, 32: 247-257.
- Cote, J. E., 2006, “Emerging adulthood as an institutionalized moratorium: Risks and benefits to identity formation”, 85-116, in *Emerging Adults in America Coming of Age in the 21st Century*, edited by Arnett, J. J., and Tanner, J. L.,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Geenen, S., and Powers, L. E., 2007, “Tomorrow is another problem: The experiences of youth in foster care during their transition into adulthood”,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9: 1085-1101.
- Kendler, K. S., Gardner, C. O., and Prescott, C. A., 2006, “Toward a comprehensive developmental model for major depression in m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63: 115-124.
- Lawrence, C. R., and Carlson, E. A., 2006, “The impact of foster care on development”,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18(1): 57-76.
- Maercker, A., Michael, T., Fehm, L., Becker, E. S., and Margraf, J., 2004, “Age of traumatization as a predictor of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or major depression in young women”, *British Journal*

of Psychiatry, 184: 482-487.

Punch, K. F., 2005, *Introduction to Social Research: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Approaches* (2nd ed.), Thousand Oaks, CA: Sage.

Stake, R. E., 1995, *The Art of Case Study Research*, Thousand Oaks, CA: Sage.

Tedeschi, R. G. and Calhoun, L. G., 2004, "Posttraumatic growth: Conceptual foundations and empirical evidence", *Psychological Inquiry*, 15(1) : 1-18.

Waite, R., and Shewokis, P. A., 2011, "Childhood trauma and adult self-reported depression", *The ABNF Journal: Official Journal of the Association of Black Nursing Faculty in Higher Education*, Inc, 23(1): 8-13.

Walsh, F., 2002, "Bouncing forward: Resilience in the aftermath of September 11", *Family Processes*, 41: 34-36.

A Qualitative Case Study on the Re-Separation Readiness Experiences of Adolescent who are Scheduled to Discharge from Child Care Institution

Yoon, Myeongsook

(Chonbuk National University)

Park, Shinae

(Chonbuk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experiences of adolescent who are scheduled to discharge from child care institution. Data was gathered from 5 adolescent who are scheduled to discharge from child care institution within 1-2 years and qualitative case study used for data analysis. The analysis showed that adolescents of child care institution experienced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and entered the institution with no consideration of their feelings. Then, they stayed in the institution for many years, even throughout their teenager-years, before they are released from the institution. Although feelings they experience of separation from the institution included worry and tension, those feelings were different from feelings they received from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in a way that the former was more hopeful and future forwarding. Based on these findings, services sensitive to adolescent who are scheduled to discharge from the institution are suggested.

Key words: child care institution, adolescent, separation from parent, re-separation, qualitative case study

[논문 접수일 : 14. 08. 16, 심사일 : 14. 09. 01, 게재 확정일 : 14. 10. 14]